유통업계 올 여름 트렌드로 복합쇼핑몰에서 여름휴가의 여유를 즐기는 '몰캉스족'이 주목받고 있다. NC백화점 강서점 옥상에 오픈한 어린이 수영장, 경방 타임스퀘어의 '7월의 재즈 콘서트', 한 가족이 스타필드 하남에서 인어공주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있는 모습(왼쪽부터). 사진제공 | 이랜드·타임스퀘어·신세계

올 여름 '몰캉스족'이 뜬다

〈몰(Mall)+바캉스〉

시원한 복합쇼핑몰서 여름휴가 해결
NC 백화점 강서, 어린이 수영장 오픈
타임스퀘어 '7월의 재즈 콘서트' 눈길

유통

지난 주말 서울 영등포 소재 경방 타임스퀘어.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공연을 들려주는 '7월의 재즈 콘서트'가 한창이다. 현장에서 만난 강혜선(32)씨는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으로 주말에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며 "지인의 추천으로 쇼핑몰을 찾았다가 문화 공연까지 경험하게 돼 일석이조"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연일 푹푹 찌는 찜통더위 속에 올 여름 유통업계 아이콘으로 '몰캉스족'이 뜨고 있다. '몰(Mall)+바캉스'의 준말로, 복합쇼핑몰에서 여름휴가를 해결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무더운 날씨에 체력 소모가 큰 야외 활동보다,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한 군데 모여있는 유통 공간이 최적의 피서지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런 트렌드를 파악해 발빠르게 시원한 여름 테마를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이 대표적으로 NC백화점 강서점 옥상을 '쉼표 하늘공원'으로 꾸며, 어린이 수영장을 오픈했다. 어린이들이 부모와 찾은 쇼핑공간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10층 옥상에 500m2(150평) 규모의 초대형 키즈풀을 설치했다. 또한 부모들이 그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휴식할 수 있도록 파라솔과 빈백을 마련했다.

NC백화점 강서점 측은 "10세 이하 아동이 즐길 수 있는 총 5개의 풀장으로 구성했으며, 3m 높이의 미끄럼틀과 워터볼 등 워터파크 못지 않게 아이들이 즐길 거리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8월13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이며 NC강서점 회원은 3만원 이상 구매 시 입장 가능하다"고 했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도 23일까지 여주·파주·시흥·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서머 바캉스 세일'을 진행했다. 이중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실시하는 '물 좋은 파티'가 관심을 끈다. 중앙광장에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돛단배를 형상화한 '마린 포토존'이 설치해 마치 휴가지에 온 것 같은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가 하면 스타필드 하남은 1층 중앙 아트리움을 동화 속 인어공주가 사는 바닷 속 마을로 꾸며 무더운 여름 고객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다.

●재즈 콘서트, 시인 낭송회 등 아이템 다양

여름 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도 인기 아이템이다. 경방 타임스퀘어의 '7월의 재즈 콘서트'를 비롯해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별마당도서관'의 명사 강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명사초청 특강'과 '7PM 컬쳐 클럽'으로 구성됐으며, 26일에는 정호승 시인이 시낭송회로 대중들과 만난다. 28일에는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통공간에 '몰카스족'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무더운 날씨에 체력 소모가 큰 야외 활동보다는 먹거리·볼거리·즐길 거리까지 한데 모여있는 쇼핑몰이 최적의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강열 경방 타임스퀘어 영업판촉팀 차장은 "뜨거운 불볕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고객이 늘면서, 유통 채널이 차별화된 몰링 콘텐츠를 선보이며 여름철 고객 유입에 적극 나서는 추세"라며 "입소문 덕분인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만큼 올해도 '몰캉스족' 특수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시중은행 "유통 플랫폼을 잡아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GS25, 카카오-롯데와 협력
편의점 대중성 통해 인지도 향상 겨냥

하나-인터파크, 우리-G마켓·옥션 제휴
차별화된 서비스 통해 경쟁력 높여

금융

'유통 플랫폼을 잡아라!'시 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맞대결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업계에 떨어진 특별 미션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오프라인 편의점과 손을 잡는가 하면, 시중은행들은 온라인쇼핑몰을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경쟁 구도 속 '유통 플랫폼'을 잡기 위한 금융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터파크 내 오픈한 'KEB하나은행 상품몰'(왼쪽)과 롯데-카카오뱅크 업무협약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 | KEB하나은행·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편의점 광역 네트워크 활용

인터넷전문은행이 편의점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지점이 없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주주사인 GS리테일 편의점 GS25를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GS25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경우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가 면제해 준다.

카카오뱅크는 롯데와 손을 잡았다. 양측은 서울 소공동 롯데빌딩 대회의실에서 유통과 금융 부문 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롯데피에스넷의 ATM망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입출금·이체 서비스 등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븐일레븐·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사 유통매장에 설치된 ATM 5000여대를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은 지난해 기준 전국 점포 수가 3만2611개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대중화 된 업종이다. 시중은행 중 지점이 가장 많다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30여개(출장소 포함)인 것을 감안하면 숫자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더 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한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편의점은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지도 향상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특성을 활용해 이를 은행 업무와 결합, 고객에게 한층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시중은행, 온라인쇼핑몰의 편리함 주목

이에 맞선 시중은행들의 선택은 온라인쇼핑몰이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에 'KEB하나은행 상품몰'을 열어 금융상품 판매를 개시했다. 은행 지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파크 회원이면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예금·적금·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측은 "금융과 쇼핑의 융합으로 또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 탄생이라는 시너지가 창출된 것"이라며 "모바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고객의 디지털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모바일 플랫폼 확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의 '위비Life@ G마켓·옥션 팡팡적금'도 눈에 띈다. G마켓·옥션과 제휴를 통해 출시하는 적금상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월 납입 한도는 25만원이다. 기본금리는 연 1.5%이지만 우대금리 연 5.5%포인트 포함하면 최고 연 7%다.

우리은행 측은 "앞으로 '위비Life@'을 생활형 제휴 특화 상품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고객이 선호하는 비금융 서비스를 접목해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윌리엄스 소노마 주방용품 구경하세요"

현대리바트가 미국 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 국내 1호 매장을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오픈했다. 영업면적은 297m²(90평)규모로, 백화점 키친 브랜드 중 최대 규모다. 쿡웨어(주방용품)·쿡스툴(조리도구)·테이블탑(식기류)·베이크웨어(빵 조리시 필요한 도구)·주방 패브릭(소품) 등 13개 분야, 2000여개 상품을 선보인다. '윌리엄스 소노마 앞치마'를 두른 직원들이 최근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1층 윌리엄스 소노마 매장에서 다채로운 주방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현대리바트

인터파크, 코딩 완구 '코딩 놀이터' 출시

로봇 형태 조립·분해하며 코딩 배워

인터파크가 코딩 완구 '코딩 놀이터'를 내놓았다.

로봇 형태의 완구를 조립·분해하고 각종 명령 수행을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코딩 완구다. '코딩'이라고 하면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모습을 연상하기 쉽지만 복잡한 과정을 대신해 그림으로 된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된다. 7~14세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이며 가격은 12만원.

홍승우 인터파크 아이토이즈팀장은 "인터파크의 미래는 이슈 상품의 단순 유통뿐 아니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개척·전문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향후 교육용 완구 및 관련 상품의 판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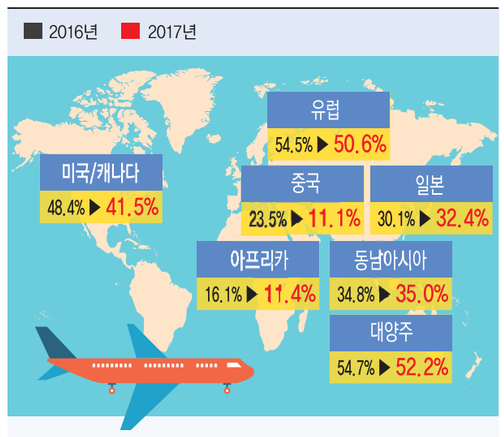
인터파크 '코딩 놀이터'로 로봇 축구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인터파크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제

해외여행지 인기도



해외여행의 주요 목적지로 중국에 대한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세종대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20세부터 69세까지 3만4800명을 대상으로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를 물은 결과 대양주, 유럽, 미국/캐나다, 동남아시아, 일본, 아프리카, 중국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23.5%가 응답했으나, 올해는 무려 12.3%포인트가 감소해 11.1%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단골 최하위인 아프리카(11.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김형준 롯데닷컴 대표이사(왼쪽)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업무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

롯데-인터넷진흥원, 국민정보 보호 맞손

안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업무협약 체결

롯데그룹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에서 전 국민 정보보호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전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실천 홍보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롯데는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닷컴 등 주요 유통 계열사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콘텐츠 노출, 정보보호 관련 공모전 및 수상작 홍보 지원, 전국 협력사 대상 정보보호지원 서비스 참여 독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NH농협, 지역아동센터 '둥지'와 여름캠핑

NH농협은행이 오크밸리에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둥지' 소속 어린이들과 함께 '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캠핑' 행사(사진)를 진행했다. 여름캠핑 참가 어린이들은 잔디밭에서 스타 셰프의 요리도 맛보고 별자리관측·공연관람·열기구 체험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경북 영주의 금대마을에서 1인1사과나무 분양·사과따기 체험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진행되는 행복채움금융교실에 참여 예정이다.

신한카드 '아름인 해외봉사단' 발대식

신한카드가 최근 '제7기 아름인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24일부터 8월2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 센툴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해외 제4호 '아름인 도서관'을 만들 예정이다. 또 현지 저소득가정 주거 및 위생환경 개선과 함께 현지 아동을 대상으로한 예체능 교육과 주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신한카드 측은 "'아름인 도서관'은 국내에 453개가 만들고, 베트남·미얀마에 각 1개,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로 설치되는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신한카드와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을 세계로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카드 31일까지 '디지털 명세서 이벤트'

삼성카드가 31일까지 결제대금 명세서를 우편 대신 디지털 방식으로 받으면 경품을 주는 '디지털 명세서 이벤트'를 연다. 행사기간 명세서 수령방법을 디지털로 변경한 회원 중 6명을 뽑아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를 준다. 또 삼성카드 또는 카카오페이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해 지인에게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추천하면 신청인 수에 따라 GS25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카드 디지털 명세서는 스마트 우편명세서·모바일 명세서·이메일 명세서·카카오페이 청구서·T스마트청구서·Mpost 명세서 등 6가지로 구성됐다.

정정욱 기자